

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, 막을 수 있습니다

주류판매자를 위한 가이드

“술 맛 안 나면서 혹 가게 타서 주세요”

술에 취한 데이트상대와
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려는 사람의
주문을 들으셨나요?

데이트 상대라고 하더라도
동의 없는 성관계는 **강간**이며,
여기에 술을 제공하는 것은
이에 대한 방조입니다.

주류 판매자는
성폭력을 위한 술 판매 요청을
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,

판매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
범죄동참을 요구하는 **폭력**입니다.

**성폭력 목적이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.
“혹 가는 걸로 라 주세요”, “술 맛 안 나고 싸게 주세요” 등..
어떻게 해야 할까요?**

**주문자가 지나치게 취해 있거나,
성폭력이 목적임을 직접
암시하는가?**

YES

**위험이 예상되는
상태에서의 주문,
성폭력을 목적으로
하는 주문에 응할
필요가 없습니다.**

NO

**누가 마실 술인지
물고, 드실 분에게
성분과 도수를
설명하고 위험할 수
있다고 고지하세요.**

- 이 팜플렛은 한국성폭력상담소 (sisters.or.kr)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#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이 제작하였습니다.
- 바, 화장실, 입구 등에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에 #그건_강간입니다 해시태그로 올려주시거나 카카오톡 (ID : stoprape) 로 보내주시면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, SNS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문의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시는 분은 antialcohol@naver.com으로 연락 바랍니다.